

하랑별(河梁別)

유니코드 U+ 2641,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 푸른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반 바퀴를 움직이면 계절이 가고, 반 바퀴를 움직이면 돌아오는. 꼭 거대한 쳃바퀴라도 굴리는 것 같아.

깊은 물 속에 눈을 감고 있노라면 나는 느낄 수 있어. 지구는 한 순간도 멈추었던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쳃바퀴를 구르는 쥐와 다를 것이 있나.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될까? 저 아래 깊은 곳? 아니면 저 우주 너머 더 높은 어딘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저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잖아. 이제는 아무도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아. 정말로 관심이 없는 걸까. 생각하려 하지 않는 걸까.

“Juno Lee”

이게 뭐예요? 수진은 엄지손가락과 엇비슷한 크기의 철조각을 한참이나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끄뻑, 끄뻑. 반질반질한 한 면에는 눈에 익을대로 익은 세 음절 이름이 또박또박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주노 리. 뭐긴 뭐야, 군번줄이지. 아니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수진은 고개를 갸웃 기울였다.

선물이야. 돌아올 때는 금으로라도 바꿔줄게.

그는 손가락을 굽혀 질 생각일랑 못 하고 우물대기만 하는 수진의 손가락을 그러모아 기어코 낡은 쇳조각을 안기고야 말았다. 쇳조각이 쇠줄에 부딪혀 짧게 잘그락 소리를 내었으나 그뿐이었다. 이내 그것은 소리없이 수진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가 허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수진은 한참 뒤에야 알았다. 아, 이제는 올려다봐야만 하는구나. 몇년 전에는 여기, 그래, 그가 굽히지 않아도 이쯤에는 머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사 그녀가 바로 선다해도 이젠 기껏해야 그의 어깨 언저리쯤 될 것이다. 수진의 키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자라지 않았다. 부러진 무릎과 함께 성장은 멈췄다.

수진이 주노를 처음 만난 것은 10년 전 생존수영 학원에서였다. 그때, 이미 그는 그녀보다 반 뺨은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단지 그 이유뿐만은 아니더라도 백여명 남짓의 학생들 가운데서 그들 서로는 각별히 눈에 띄었다.

주노 리, 그리고 수진 밀러.

“걸어 줄까?”

“군번줄을요?”

주노가 웃었다. 그런데 이거 정말로 없어도 되는 건가. 저기요, 대위님, 혹시 배라도 난파되면요. 어차피 이 망망대해에서야, 해군으로 살았으니 수장이 내 운명이었으려니 해야지.

실없는 대화가 길지 않게 오갔다. 주노는 자신이 쥐게 한 수진의 손가락을 도로 펴 체인을 집어올렸다. 투박한 쇠조각이 그의 손바닥에서만큼은 터무니없이 작게 줄어드는 것이 우스워 수진은 눈썹을 찌푸려 웃었다.

참으로 미묘한 이름이었다. 수진은 언젠가 먼발치에서 짓궂게 떠들던 남학생 무리를 기억한다. 이윽고 수영장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하나 둘 크고작은 웃음을 터트린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안녕하세요, 수잔이에요. 스펠링은 S-U-J-I-N을 쓰지만.

수진의 어머니는 한국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잃어버린 나라의 아이들과 같은 이름을 붙여주고자 했다. 그러므로 그녀가 한 눈에 주노를 알아볼 수 있음은, 온전히 그녀의 양친 덕분이었다.

너희 아버지, 한국인인가보다. 우리 어머니랑 같은.

우렁찬 뱃고동이 항구를 가득 메운다. 수진의 파아란 눈이 텅 빈 하늘을 담았다. 눈은 내리지 않는다. 여름이 한창이다.

자전축의 양 끝에서부터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구를 얼리기 시작한 빙하는 빠른 속도로 지구를 덮었다. 빙하기, 수만년 전에는 아마도 그것을 그렇게 불렀더랬지. 서리 낀 듯 하이얀 동토 아래로 점차 큼직한 유빙들이 사라진 대륙을 대신하기라도 하듯 기선에 달라붙으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고작 십억명 남짓한 인류에게 있어서 얼음의 습격은 몹시도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거대한 얼음산의 진격이 북대륙을 넘어서 북경의 어느 높은 빌딩을 직면했을 때, 일찍이 뉴욕의 상황은 초토화에 가까와 있었다. 토론토는 통신조차 끊긴지 이미 오래였다. 알프스 초원의 푸르름이 여름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이듬해 8월이 되어서야 알아차렸다. 모든 것이 느렸다. 그때는.

갈매기는 울지 않는다. 거친 바닷바람이 방과제에 부딪혀 우는 소리만이 수진의 귓가를 가득 매운다. 항구에는 한 척의 배도 남아있지 않았다. 후드에 달려 뺨을 보슬보슬 할퀴던 털이 눈을 찌르자 수진은 그제사 잠에서 깬 듯 천천히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멀쩡히 돌아가는 제어판은 내버려두고선. 바퀴를 굴렸다. 패딩 밖으로 드러나는 손은 작았다. 힘없는 작은 손이 굴리는 휠체어는 아주 더디게 움직였다. 그녀는 문득 망망대해를 향해할 그 배를 겹쳐보았다. 제 아무리 힘세고 날랜 배도. 그래, 바다에 뜨기만, 뜨기만 하면 그 얼마나 초라해만 지는 것인가. 부둣가에서 굴러가는 이 낡은 휠체어보다도 느린, 그것.

“수잔이니? 콜록, 생각보다 빨리왔네.”

같은 연구실을 사용하는 마거릿 브라운은 두 살 터울이 나는 동기 수진을 살뜰히 아꼈다. 수다스러운 메그에게 있어서 어둡고 음침하기 짝이 없는 지하 병커 연구실에서의 홀로 시간 보내기는 쥐약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살다보면 직접 보지 않아도 눈앞에 선하게 펼쳐지는 광경이 있었다. 그녀가 수진의 손에 푸른 해군 마크를 박은 머그컵을 꼭 쥐어주었다. 두껍게 낀 장갑 너머로 뜨끈한 열기가 전해졌다.

“밖은 어때, 날이 좀 풀렸나? 오전에는 하도 바람이 거세서 산책도 못할 것 같더니만.”

우박처럼 쏟아지는 질문과 그 언저리 것들에 수진은 바람이 힘없이 빠지는 듯한 모양새로 웃었다.

“바람은 멎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도리, 고마웠어요. 메그.”

메그는 그녀의 무릎 위에 깔끔한 정사각형으로 개인 푸른 목도리를 집어올렸다. 짙은 푸른색은 칙칙한 연구실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코를 찡그려 웃었다.

“목도리에 각이 잡혀있는 게 딱, 군인이네.”

수진은 마거릿이 목도리의 각이 행여 흐트러질세라 사뿐히 캐비닛에 옮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핫초코를 흘쩍였다. 군인이죠. 아무려면, 자그마치 7년인걸요.

수진은 그 생존수영학원에 2년을 더 다녔다. 내내 수진은 혼자였고, 주노는 그때까지도 바로 그 요란스런 남학생 무리에 속해 있었으므로 둘은 인사 한 번은 했을까, 그저 그런 사이로 남았다. 그때는 누가 오늘날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일이라도 있으리란 것을 짐작이나 했을까. 학원을 그만둔 수진은 수산질병학을 독학으로 공부했다. 다리가 온전치 못한 수진에게 있어서 그것은 최선이 아닌 다만 차악의 선택지일 뿐이었다. 반면 그녀의 동기인 메그는 어떠한가? 사랑하는 동물들을 보살피는 그녀의 눈은 언제나 깊은 애정과 선량함, 그리고 기쁨으로 빛났다. 같은 인간으로서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어와 나는 어디 다른 종이랄지도 되는가, 수진은 이따끔 경이를 느꼈다.

“옥……”

수조를 무겁게 짓누르던 가림천을 들어내자 그것의 모습이 드러났다. 잔뜩 부패해 뒤집어진 은색 표면 사이사이로 솟다 만 거품, 오래전에 숨이 끊겼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파들거리는 지느러미, 벌름거리는 아가미. 악취가 코를 찔렀다. 금방이라도 속을 게워내야만 할 것 같았다. 수진은 마스크로 꼼꼼히 덮인 코를 손가락으로 힘주어 눌렀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이 끔찍한 무언가의 위에 토사물을 쏟아낼 것 같았다. 이주쯤 전에 명을 달리한 그것의 모양새는 끔찍했다. 상온이라지만 여전히 춥고 건조한 온도에서의 부패는 느렸다. 참으로 다행인 일이었다.

수진이 조심스레 핀셋으로 환부를 들추어내고 증상을 진단하면, 메그는 사진으로서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그것이 그들의 주된

업무였다. 꾸준히 구역질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수진은 느꼈다. 비단 그녀의 코를 미칠 듯 조여오는 악취 때문만은 아니었다. 환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뿌리를 박고 올라온 그것. 괴랄한 주름이 겹겹이 겹친 모양새가 언뜻 보기에는 마치 육지에 피는 장미과의 무언가와 닮았다. 그래, 징그럽게 박동하지만 앓는다면 말이야. 수진은 가늘고 긴 바늘로 내부를 덮고 부풀어 올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것’의 중심부를 쿡 찔렀다. 피와 비슷한 색의 액체가 쇠를 타고 방울방울 맺혔다.

수 만년 전 빙하 아래 저 깊이 발이 묶여있던 ‘그것’들. 어마무시하게 굵주린, 이 오래된 포식자들의 배에 한 순간에 들어 삼켜져버린 유럽의 동토따위는 기미조차 되지 못했으리라. 그들은 이내 동쪽으로 향하는 구조선에 잠입하여 서남아시아에 이르러서는 거의 수십만에 이르는 어류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게 했다.

인류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 발견된 역사상 최악의 어종 바이러스. 덕분에 인류는 전래가 없는 최악의 빙하기에 이은 식량부족으로 멸종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신속히 어류전문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으나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은 뛰어난 두뇌를 가진 대신 생존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쉽게 무너지곤 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거릿이 한탄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빌어먹을 부자들. 만 년쯤 뒤에는 저희들도 똑같은 꼴을 보게 될텐데.”

“덕분에 저흰 반년이나 먹고 살았는데요. 그리고 그네들은 그때쯤이면 또 다른 행성을 찾아내겠죠.”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보일래야 그럴 리 없는 저 먼 별을 향해 그녀는 핏줄 선 주먹을 흔들어보였다. 이곳의 하늘이 눈보라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면 보였을까. 때때로 수진은 그 별을 떠올렸다.

부족함이 없는 곳, 너른 자주빛 잎사귀를 펼친 둥근 나무가 나른한
그늘을 뻗는, 공색 모래 이리저리 흐트리는 진홍색 호수가 있는 곳.
잠시나마 그녀의 집이 되었던 그 별.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아픔도 질병도 모르는.

“기어이 이 별에서 죽을 운명이라면, 콧, 저이들도 함께 고프라졌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억울해서라도 못 떠날 것 같아. 지옥이든,
 천당이든...”

본디 그들의 직업은 이런 것이 아니다. 침침한 지하실에서 가스등에
 의지하여 썩은 물고기 따위를 찢어보는 일은 그녀들의 업무가
 아니었다. 나는 과학자도, 의사도 아닌데. 녹이 슬어 잘 돌아가지조차
 않는 병커 문을 힘으로 열어채끼며 마거릿은 씩씩하게 웃었다. 그것이
 벌써 몇 년 전의 일인가.

개척지로 가는 구조선 티켓은 반드시 성인 부부 한 쌍을 기준으로 단
 한 장. 정당한 값을 지불할 수 없다면 이 별에서의 대통령도, 저명한
 지식인도 예외는 없다. 아이들은 애초에 논의 대상의 범주조차 들지
 못하였다. 공평하지 못하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줄줄히 아이를 낳아 인구를 불리는 것은 돈 없는 빈민의
 일이었지, 잘 먹고 잘 사는 이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다.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티켓은 불티나게 팔렸다. 그 어느
 누구도 쓰레기로 가득찬 악취 풍기는 별 따위로부터의 해방을 원했다.
 세상에 그렇게도 부자가 많았나 처음 알게 되었다며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아직도 그때를 어제처럼 회상했다. 그렇게 세 번째 구조선이
 막 대기권을 벗어났다는 소식이 아침 뉴스로 생중계 될 때 즈음,
 기상학자들은 최악의 기상이변에 대한 징조를 목격했다. 참으로 모든
 일은 우연스러웠다.

마거릿이 입가를 손목으로 가리곤 잔기침을 몇 번 했다. 근래 잔병치레가 부쩍 늘었다. 엿저녁 밤에는 열이 40도 직전까지도 올랐다고 했다.

“...그래도, 이 별에 온 덕분에 나는 메이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썩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야. 내 말이 맞지, 수잔?”

그럼요. 덕분에 늘 좋아보이는데요. 수진이 이리저리 흩어진 차트를 정리해 제 자리에 꼽는 것을 바라보던 미소 띤 눈이 슬쩍 시선을 돌려 ‘메이’를 찾았다. 시선이 닿는 연구실 벽 끝에는 고정된 대형 어항들과는 구별되는 작은 어항이 있었다. 그 안에서 불빛을 받고 헤엄치는 작은 열대어를 수진은 곧바로 볼 수 있었다. 그녀가 환히 웃었다. 바지런한 흰 이빨이 언제나 참 보기 좋았다. 적어도 수진은 그렇게 생각했다.

“웁... 너는 어떻게 영양제를 타도, 꿀 한 숟가락은 좀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좀 너무해.”

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갔는지 마거릿은 계속해서 물 섞인 기침을 했다. 아니면 가래가 쫓는지, 마치 빨대로 우유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 마냥 부그르르거리는 더부룩한 소리가 섞여났다. 두 뺨이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맨눈으로도 보일 지경이었다. 체온계는 없었다. 수조나 물고기를 위한 것은 있었어도, 대부분의 인간용 의료장비는 지상이 아닌 배에 있었다. 가령, 몇 시간 전에 출항한 주노의 배라던가.

감기쯤이야, 배가 돌아오기 전에 떨쳐내는 것이 나왔다.

“수잔, 떠나고 싶지 않아?”

“그럴 돈은 어디서 나세요.”

“나 재벌 4세잖아. 몰랐어?”

언니 믿지? 아프다면서 이제 한층 여유로워진 듯 실실 웃기까지 하는 그녀를 뵈히 내려다보다 수진은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려 저만치 멀어졌다. 난방 온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어느 누가 원하지 않겠나. 그것은 수진 마음에도 간절한 일이었다. 단지 현실이 각박하여 입 밖으로 꺼내지만 앓을 뿐이지.

“그럼 바이러스는요? 이 실험실은 어찌고요.”

“우리는 말고. 너 말이야, 너. 수잔.”

방의 온도를 50도까지 높였다. 물론 얼음굴을 파 만든 방은 좀처럼 따뜻해질 기색이 없었으므로, 수치상으로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니었다. 차라리 수진은 벽장에서 담요를 더 꺼내오는 방안을 선택했다.

“수잔.”

“네, 메그.”

“있잖아. 다리는 어찌다 그렇게 된 거야?”

척 보니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더라고. 너는 별 말이 없었는데, 사연이 있겠구나, 해서. 그냥 무시했어. 느린 호흡에도 몰아쉬는 숨이 점점 거칠어졌다. 수진은 마거릿의 입을 막으려다 그만 말았다. 한창 기분이 좋아보이는 참이니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다. 차라리 순순히 응해주는 것이 옳았다. 판단이 서자 수진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무릎이 부러졌어요.”

“왜?”

“어릴 적에, 그러니까 부둣가에서 살 적에... 달리기를 좋아했거든요. 아버지 말씀은 듣지도 않고 경찰견을 쫓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방과제 어딘가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떨어졌는지 다리가 반대로 꺾였죠. 살을 찢고 뼈가 튀어나왔는데, 그 꼴을 마주하고 있자니 그대로 있으면 정말 죽겠다 싶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수진이 소리지르는 건 잘 상상이 안 가.”

“그땐 정말로 죽는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수진은 마거릿의 두터운 외투를 훌훌 끌러내렸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오른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낡은 가스등의 불이 이리저리 흔들리자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도 이리저리 흐트러진다. 바람이 불 리도 없는데, 바퀴가 탁자를 잘못 건드렸다.

“그런데 우리 지금도 부둣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 싫거나 무섭지는 않았고?”

“지금 바다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디에 있나요? 저도 이 행성에서 태어났는데, 새삼스럽죠.”

수진은 키트를 뒤적거렸다. 메그의 감기에 쓸 만한 약이라곤 그나마 군에서 보급된 영양제 키트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꽤 긴 시간 감기를 앓은 그녀의 몸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였다. 반드시 마거릿의 감기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떨어진 보급품은 반드시 보충이 필요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면역력이 약해진 몸은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 수진은 그렇게 떠나간 사람을 몇이나 보았다. 낡은 담요를 찾아 마거릿에게 건넸다. 차라리 잠이라도 자요.

메그는 몇 번의 반항 끝에 그녀에게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얌전히 담요를 덮었다.

그렇게 그녀들은 일주일을 더 버텼다. 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전에도 종종 이런 일들은 있었다. 수진의 꾸준한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는 일주일째 ‘조금 더 버티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아마도 요 며칠 지속된 악천우 탓이겠지. 수진은 말없이

자신 몫의 키트를 단았다. 배는 언제쯤 돌아올는지. 구 운하에 갇힌 배를 구출하는 대로 귀향한다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뭐가요?”

“캡틴이랑 어떻게 되었느냐구. 왜, 출항 전에 만났었잖니? 나는 쪽 빼놓고서.”

새삼스럽게? 낡은 소파에 몸을 걸치듯 힘없이 널브러져만 있던 그녀가 입술을 썰죽거리며 미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러니? 내 감이 정말 틀렸다. 고개를 뒤척이자 푸석한 금발이 더러운 가죽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졌다.

“그래도 선물은 받았죠, 짠.”

“어머, 목걸이야? 어디 좀 보자… 인식표잖아. 이게 뭐람?”

“귀향할 때는 금으로 바꿔주겠다는데요.”

기대감에 동그랗게 뜬 그녀의 갈색 눈이 잠시 찌푸려졌다. 무언가를 묻는 듯 했다.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거 혹시 프로포즈니?

비슷할걸요.

수진은 적셔온 수건을 힘껏 비틀어 물기를 짜냈다. 물기를 짜낸 이전과 이후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주한 수진은 깔끔하게 이마에 올릴 수건을 포기하고는 싹싹하게 마거릿의 팔다리를 닦기 시작했다. 맺힌 물이 방울방울 바닥에 떨어지며 음울한 소리를 냈다.

“있잖아 수잔.”

“자꾸 찾으시네요.”

“캡틴한테 잘 해줘.”

마거릿이 숨을 색색 몰아쉬었다.

“저도 그이 좋아해요.”

돌아보면 그녀는 언제나 한결같았다. 이 별에서 처음 만나 승선 시험을 치르던 한 주, 개척지에서의 직장 동료로서 반년, 다시 이 별에서의 6년. 말도 질문도 정도 많은 것이나. 그래, 열이 오르지 않아도, 상태가 좋아도, 나빠도, 틈만 나면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나. 수진과 마거릿, 그리고 주노, 세 사람이 이 행성에서만 함께한 시간도 어느덧 만으로 6년이다. 유달리 침착하고 말수가 적은 수진과 활발하고 언제나 소란을 몰고 다니는 두 사람은 의외로 합이 좋아 어디든 함께했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열이 많이 올라서인지 자꾸 헛소릴 한다.

“나는 정말로 네가 이 별을 떠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래. 마거릿이 작게 웃었다. 불빛을 가득 받아 반짝이는 한 마리 열대어가 유유히 어항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기도라도 헤드릴까요.

기도는 무슨, 애. 손이나 잡아줘.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과로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수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과로는 무슨, 우리 연구실은 사흘에 한 번은 놀고먹는 게 일이었어. 메그의 방에서는 그 흔하다는 편지글 한 줄 없이, 허름한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서류만이 발견되었다. 종이몽텅이 마지막 페이지에 휘갈겨 쓴 메그의 친필만이 오직 그것의 효력을 증명했다.

수진, 그리고 주노에게.

수진은 차디찬 손을 잡고 이틀을 홀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날이 추워서 다행이지. 눈이 오지 않아서, 건조해서 다행이었어. 시신의 부패는 유독 더뎠다. 그녀를 무덤에 안치시키기 위해 온 사람들은 말했다. 꼭 자는 것 같네. 수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차게 굳은 손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다.

주노가 도착하기까지는 그로부터 반나절이 더 걸렸다. 마거릿 브라우트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없어 생활 동반자로 등록된 주노와 수진이 그녀의 전재산을 상속받았다. 세금을 떼어내자 남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책임질 가족도 하나 없으면서 적지 않게 지급되었을 월급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들의 이름 앞으로 그녀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통장에 찍힌 액수의 뒷자리 숫자가 뜻하는 바는 명료했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단 몇 자리의 숫자.

정당한 값을 지불할 수만 있다면야. 연합 정부의 총장도 내일 얼어죽을 거지도 돈 앞에서만큼은 평등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이 행성의 법칙이다. 티켓을 끊는 것은 어렵지도 않았다. 그들이 구한 돈이나, 그 외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긴 내내 주노와 수진 사이에는 어색하지 않은 침묵만이 자리했다. 수진은 창틀에 팔을 대고 턱을 괴려고 했다. 배와는 달리 우주선의 좁은 창문에는 턱이 없었으므로 팔은 당연스럽게 아래로 미끄러졌다. 주노가 재빠르게 수진의 다른 팔을 붙잡아 지탱했다. 창턱도, 틀도, 손잡이도 없는 작디작은 창문 너머로 푸른 구슬같은 행성이 짙막하게 비치었다. 수진은 미련 없이 그곳으로부터의 시선을 끊어냈다.

주노가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다. 수진의 품에 안긴 작은 수조, 그 얇은 유리막 안에서 자잘한 파도가 일었다. 휠체어는 작은 오두막집

앞에서 멈췄다. 인류의 개척지 이주 역사는 5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넓은 이파리를 가진 나무들 사이로 얼핏얼핏 드러나는 철판으로 얼기설기 짠 이 작은 집은, 마치 한 세기의 세월을 흘러보낸 것 마냥 더럽고 낡아빠진 것이 제법 의기양양해 보이기까지 했다. 정말로, 왜 진작 철거하지 않았지? 습기 탓에 천장에 방울방울 맺힌 물이 똑,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설피게 지붕을 얹은 철판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려왔다. 더없이 평온한 정오였다.

놀랍게도 낡은 오두막집의 내부는 꽤나 넓었다. 크기는, 글썄. 개척지의 여느 팬츠는 가정집에서 볼 수 있을법한 야외 수영장 정도? 그래, 야외 수영장. 놀랍게도 오두막집의 내부는 사람 한 두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의 좁은 테두리 통로를 제외한 고로 바닥이 모두 끝이 보이지 않는 수조 그 자체였다. 달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수진은 품고있던 수조의 뚜껑을 열었다. 수진은 뚜껑을 완전히 분리한 수조를 주노의 손에 건넸다.

“주노. 황금 물고기 이야기, 알아?”

어부에게 잡힌 황금 물고기가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그거, 그 동화 말이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주노의 눈에서 순간 웃음기가 가셨다.

그러니까, 진심이야?

진심이지.

두 번의 질문은 없었다. 주노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낮추곤 수조를 기울였다. 미끄러운 느낌이 손끝을 스치는 듯 수조를 빠져나갔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그것이 포물선을 그리며 멀어져 갔다. 메이가 사라진 자리 위로 얇게 진 겹물살을 수진은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마저러이 집의 위치를 강변과 숲의 초입 사이 애매한 위치에 정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주노가 그때와 똑같이 멧쩍은 웃음을 지으며 허전하게 빈 수조를 다시 그녀에게 건넸다. 수진은 통에 손을

넣어 가볍게 벽을 쓸었다. 손끝에 붉은 꽃잎 같은 것이 묻어나왔다.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무미건조하게 손가락을 튕겨 그것을 물에 흘려보냈다. 그것은 수진의 손에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다.

“집에 갈까?”

“집에 가야지.”

바닥이 삐걱거렸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주노는 수진의 휠체어 손잡이를 가볍게 잡아 돌려세웠다. 입구는 정확히 그런 행동에 제약을 주지 않을 만치 아슬아슬하게 좁은 넓이였다. 마치 흡사한 동작이 익숙한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것 마냥. 녹이 슨 철문은 그 흔한 잠금쇠 하나 없이 영성하게 열리고 닫혔다. 수진의 목덜미 언저리에서 작은 사슬이 빛을 반사해 반짝였다. 밖은 여전히 선명한 분홍빛에 눈이 부신 한낮이었다.

금빛 윤슬 일렁이는 진홍색 호수가 있다. 호숫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단정한 하얀 집, 그곳에 두 사람이 산다. 짧은 검은 머리에 휠체어를 타는 여자와, 휠체어를 끄는 남자. 거대한 고리행성을 도는 붉은 달. 그 위에 두 사람이 서 있다. 이 별에는 해도, 달도 뜨지 않지만 고리행성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낮도 밤도 없이 밝은 별들이 붉고 푸르른 하늘을 향유한다. 별, 별, 별. 하늘이 맑으면, 날이 맑게 개이면 보일 줄로만 알았던.

조금이라도 푸른기가 도는 빛을 찾고자 눈을 가늘게 뜨고 수십억의 점들을 눈으로 훑는다. 생각보다 더, 더 먼 것이지. 남자가 그녀의 이마를 꺾꺾 누른다. 너무 집중하면 눈 나빠지는데. 찾을 수 있을 리가 어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안다. 9할을 이루는 바다, 1할을 이루는 땅으로 빛은 쓰레기별, 또다시 그들을 모두 감싸고도 남는 얼음과 눈의 별. 그들은 그곳에서 왔다. 이 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왔다.

만년쯤 뒤에는 똑같은 꼴을 보게 될 텐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휠체어를 탄 여자가 웃었다. 흰뺨에는 보조개가 꽤인다. 여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따뜻한 손이 이윽고 머리에 닿는다. 수진은 가만 눈을 감았다. 백금색 펜던트가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하나된 듯 반짝였다.

우주는 어떤 색인가, 우주는.

눈부시게 빛나는 붉은 별, 그 위에 우리는 서 있어.